전력거래소, 에너지 대전환 스마트 융합 플랫폼 도약

창립 2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개최

2027-2031 중장기 경영전략 발표

계통 안정·시장 혁신 등 전략 제시

1일 나주 본사에서 열린 전력거래소 창립 2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제공〉

전력거래소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 융합 플랫폼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전력거래소가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기관의 새로운 지향점인 '에너지 대전환을 앞당기는 스마트 융합 플랫폼'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신정훈 국회의원, 안도걸 국회의원의 영상축사와 박상형 한전KDN 사장, 김홍연, 한전KPS 사장을 비롯해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민간발전협의회 등 전력시장 유관 협·단체 관계자, 나주시장, 경실련 및 자매결연시설 등 지역사회 인사, 전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새 비전은 2018년 제정된 기존 비전을 개정해 전력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새 비전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능형 계통 운영을 뜻하는 '스마트' ▲발전·소비 및 신산업 참여자를 연결하는 '융합 플랫폼'의 3가지 핵심 지향을 담았다.

핵심가치로는 '미래성장'을 제시하고, 기관 자체의 성장을 넘어 분산에너지 확산 등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전력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력거래소는 비전 달성을 위한 '2027-2031 중장기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4대 전략방향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전력시장 혁신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미래 전력시스템 구축 ▲지속가능 성과창출을 제시했다.

이날 비전 선포 세리머니에서는 이사장, 상임이사, 노동조합 위원장, 내외빈 등 12명이 홀로그램 전자버튼을 동시에 터치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으며, 현장에 참석한 전 직원이 새 비전을 한목소리로 제창하며 힘찬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성진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5년간 지켜온 무중단 전력공급과 공정한 시장운영은 에너지 대전환을 떠받치는 토대"라며 "AI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선포한 비전을 경영계획과 예산, 조직 및 성과관리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신뢰하고 시장 참여자가 공감하는 스마트 융합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옥 기자

삼성전자, 실속형 'New 갤럭시 북6' 국내 출시

합리적인 사양·가격…119만원부터

최대 25시간 배터리·고속충전 탑재

삼성전자는 1일 일상 속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실속형 'New 갤럭시 북6'를 국내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갤럭시 북6 울트라', '갤럭시 북6 프로'에 이어 4월 '갤럭시 북6'를 출시하며 '갤럭시 북6 시리즈' 라인업을 확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합리적인 사양과 가격으로 소비자 구매 부담을 낮춘 'New 갤럭시 북6' 모델을 추가로 선보이며 제품 선택 폭을 확대했다.

가격은 CPU, 운영체제 등 세부 사양에 따라 119만원부터 149만원까지 다양하다.

출시 프로모션 기간 중 삼성닷컴에서 구매 시 134만원 제품에 최대 18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돼 체감 가격을 낮출 수 있다.

'New 갤럭시 북6'는 35.6㎝(14형) 단일 사이즈와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되며, 전국 삼성스토어 등 오프라인 매장과 삼성닷컴,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New 갤럭시 북6'는 최신 인텔 코어 시리즈3 프로세서를 탑재해 학습, 과제, 업무 등 일상 작업을 위한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지원한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5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해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을 갖췄다.

30분 충전으로 최대 33%까지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도 탑재했다.

또, 새로운 16:10 화면 비율과 눈부심 방지 기술인 안티 글레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반사 및 화면 비침을 줄여 생생한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다.

35.6㎝의 휴대하기 좋은 크기와 1.35㎏의 가벼운 무게 등 뛰어난 휴대성으로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USB-C 포트 2개, USB-A 포트 1개, HDMI, 헤드폰·마이크 잭 등 다양한 필수 포트를 지원해 별도 어댑터 없이도 외부 기기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갤럭시 생태계를 기반으로 PC와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저장 공간을 공유해 파일을 PC에서 열어볼 수 있고, 스마트폰·갤럭시 탭과 PC를 연결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파일을 간편하게 옮길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New 갤럭시 북6' 출시를 기념해 8일까지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고객 대상 체험단을 운영한다.

체험단 기간 구매 고객은 빠르게 제품을 수령하고, 네이버페이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후기 작성, 매장 픽업 혜택을 더하면 최대 18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상 수리 서비스, 파손 보상이 포함된 'AI 구독클럽'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구독료 5% 할인과 멤버십 포인트 5% 적립을 기본 제공한다.

/박선옥 기자

하반기 건설업 日평균 임금 28만2천원…1.40%↑

건설경기 침체로 3년 연속 상승세 둔화

건설경기 부진으로 하반기 기준 건설업 임금 상승률이 3년 연속 둔화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월 건설업 임금 조사를 토대로 집계한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이달 1일자로 공표했다.

조사 결과 건설 관련 전체 132개 직종의 일 평균 임금은 28만2천73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올랐다. 직전 반기(올해 1월1일자)에 비해서는 0.98% 상승에 그쳤다.

하반기 기준 건설업 임금 상승률은 2023년 6.71% 상승 이후 2024년 3.30%, 2025년 1.66%에 이어 올해 1.40%까지 3년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기성액 증감률은 2024년 3.2% 감소에서 지난해 15.7%로 감소폭이 커졌고,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줄었다.

하반기 직종별 임금은 일반공사 직종이 평균 27만614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4% 올랐고,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광전자 직종은 평균 43만8천923원으로 1.0% 상승했다.

원자력 직종은 평균 24만7천820원으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높은 2.6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 전남광주·전북·충남 첫 지정

정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고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곳을 처음 지정했다.

국무조정실과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광역연계형 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산업 공급망의 가치사슬과 연관된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전남광주 중심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는 전북과 충남이 함께 참여해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의 충전과 자율작업을 실증한다.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에서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두 특구에는 모두 12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특례 8건이, 신해양레저 특구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특례 4건이 각각 적용된다. /안태호 기자